

朱熹 山水遊記 小考

李 聖 浩*

< 目 次 >

I. 緒論

II. 朱熹가 山水遊記를 지은 근본적 所以

III. 朱熹의 山水遊記에 說理가 없는 所以

IV. 結論

<참고문헌>

I. 緒 論

朱熹(1130-1200)는 字가 元晦(一字 仲晦), 徽州 婺源 사람이다. 그의 《宋史》本傳에 의하면, 그는 「젊었을 때 개연히 求道の 뜻이 있었으며(少時, 慨然有求道之志), 「성현의 道統이 전해진 것이 方冊에 散在되어 있어서 성인과 경전의 뜻이 不明해지고 도통의 전수가 비로소 어두워졌다고 일찍이 생각하여, 이에 그의 정력을 다해서 성현의 經訓을 연구하였다(嘗謂聖賢道統之傳散在方冊, 聖經之旨不明, 而道統之傳始晦. 於是竭其精力, 以研究聖賢之經訓)」고 한다. 그는 그의 철학체계가 「지극히 광대하고 지극히 정미하게 백대를 망라했다(至廣大, 極精微, 綜羅百代)」라는 평을 받는 南宋의 集大成적인 理學家이다. 여기에 걸맞게 대략 총 2960여 편에 달하는 그의 문

* 성균관대 중문과 박사과정

장도 대체로 學術性的 說理文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가장 걸출한 것임에는 부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중에는 說理와는 무관한 「清新可喜」한 문장도 있으니, 바로 산수유기이다. 비록 작품 수는 <百丈山記>와 <雲谷記> 두 편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朱熹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朱熹의 이 산수유기에 대해서, 理學的 集大成的 학자인 朱熹가 說理·議論과는 무관한 산수유기를 지은 근본적 所以는 어디에 있는가, 宋代 산수유기의 주요 특징인 議論化 경향은 朱熹의 文學觀으로 볼 때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도 그의 산수유기 작품에서는 왜 보이지 않는가, 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簡論해보고자 한다.

II. 朱熹가 山水遊記를 지은 근본적 所以

朱熹는 왜 說理·議論과는 무관한 산수유기를 지었던가? 여기서는 그 근본적인 所以에 대해 探討해보고자 한다.

후대에 朱熹와 병칭되고 있는 程伊川은, 문장을 짓는 것도 「玩物」이어서 「喪志」케 하니 「作文害道」라고 하면서, 일반 詞章之文을 짓는 것에 대해 극단적인 부정을 했다.¹⁾ 그의 四傳弟子인 朱熹의 문장관도 大同少異하다. 大同적인 면에서 보면, 「道는 문 의 근본이요 文은 도의 枝葉이다(道者, 文之根本; 文者, 道之枝葉)」²⁾; 「이 문장이란 것은 道 안에서 부터 流出되어 나오는 것이니, 어찌 문장이 도리어 도를 켈 수 있는 이치가 있겠는가(這文皆是從道中流出, 豈有文反能貫道之理)」³⁾; 「또 글에 이치가 없다면, 또한 어찌 족히 글이 될 수 있겠는가(且文而無理, 又安足以爲文乎)」⁴⁾라고 한 것

1) <二程遺書>第十八卷

2) <朱子語類>卷139

3) <주자어류> 권139

4) <興汪尚書>, <朱子大全> 권30

들이 바로 그것이다. 少異적인 면에서 보면, 「글을 지을 때는 모름지기 實에 의거해야 하며, 조리가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공하거나 너무 巧로 흘러서는 아니된다. 대저 7 정도는 實이어야 하고 2 내지 3 정도만 文이어야 한다(作文字須是 靠實, 說得有條理乃好, 不可架空細巧. 大率要七分實, 只二三分文),⁵⁾라고 하여 「言之無文, 行之不遠」한 즉, 어느 정도 作文之法 및 文飾에 대한 추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집대성적 이학가 朱熹에게 어찌하여 載道文章으로서가 아닌 산수유기가 있는 것일까? 일단 여기에 대해 의심은 가지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朱熹는 <西原菴記>의 첫머리에서 「나는 少壯之時에 아름다운 산수를 매우 좋아했었다(予少好佳山水異甚),⁶⁾라고 술회하고 있다. 연이어서

그러나 중년 이래로 病衰로 해서 (산수를 심히 좋아하는) 나의 뜻을 사방으로 펼칠 수가 없었는데, 유독 여산의 奇秀가 천하에서 제일이고 그리고 畸人·逸士들이 왕왕 그 곳에서 배회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늘 상 꼭 한번 유람하고 싶었으나 틈이 나지 않았다.(而自中年以來, 卽以病衰不克逞其志于四方, 獨聞廬阜之奇秀甲天下而畸人逸士往往徜徉於其間, 意常欲一往遊焉而未暇也.)

라고 기술하여, 病衰한 중에서도 여산을 꼭 한번 유람하고 싶었던 작가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 <雲谷記>를 보면

물이 그 아래에서 나와 澗을 향하여 激流하는데 특히 幽麗하다. 아래로 흘러가면서 열 몇번을 굽이치면서 용솟음치다가, 서쪽으로 잇몸 같이 생긴 옆으로 드러누운 돌에 이르러서야, 물꼬리를 길게 늘이면서 천천히 흘러가는데, 여기에 입한 작은 정자를 짓고 陸士衡의 招隱詩語를 취하여 鳴玉으로 이름하고 싶었으나 그럴 틈이 없었다.(水出其下, 涼散激射於澗中, 特爲幽麗. 下流曲折十數, 騰蹙沸湧, 西抵橫石如 駭駟者, 乃

5) <주자어류>권139

6) <朱子大全>권79

曳而長演遂徐去,欲爲小亭臨之,取陸士衡招隱詩語,命以鳴玉而未暇也.)⁷⁾

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외에도 이 글에는 勝景地에다 정자를 짓고 싶어 했던 작자의 소망이 몇 군데 더 보인다. <南嶽遊山後記>에서는

계미일에서 병술일까지 도합 사일, 약궁에서 제주까지 도합 180리, 그 사이의 산천입야의 風烟景物은 여태껏 본 바에 비해 시가 아닌 것이 없었지만, 전날에 (시를 짓지 않기로 한)⁸⁾ 약속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또한 헤어질 날이 닥쳐오고, 그리고 전날에 강구한 바에 이미 그 실마리는 열었지만 끝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되어, 서로 더불어 思繹討論하여 그 설을 끝내려고 한 즉, 詩에 있어서는 진실로 틈나지 않는 바가 있었다.(自癸未至丙戌凡四日,自嶽宮至攔州凡百有八十里,其間山川林野風烟景物視向來所見,無非詩者,而前日既有約矣.然亦念夫別日之迫而前日所講蓋有既開其端而未竟者,方且相與思繹討論以畢其說,則其於詩固有所不暇者焉.)⁹⁾

라고 하여, 자연의 風光에 인해서 動한 詩情으로 해서 시를 짓지 아니할래야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전날에 이미 시를 짓지 않기로 굳게 약속한 데다 시급히 끝내야 할 강론이 있어서 山水에 因해서 動한 詩情을 억누르고 있는 작가의 심정이 소상히 피력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朱熹는 天性이 산수를 매우 좋아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겠다. 여기에서 본고는 陶淵明이 「少無適俗韻」하고 「性本愛丘山」하여 결국 歸去來했던 것 처럼, 朱熹도 또한 그 천성이 산수를 좋아하여 「充於中, 溢於外」식으로 不得已하게 산수유기를 지었지 않았을까, 라고 감히 추단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朱熹가 산수로 隱逸하고 싶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雲谷記>를 보면

그러나 나는 늘 지금부터 십년이 지난다면 자식들의 혼사도 거의 끝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곧 집안 일에서 벗어나 이 산에서 살리라고 생각한다. 이 때 쯤이면 산의 초목은 마땅히 더욱 무성해 질 것이고,

7) <주자대전> 권78

8) 宋時烈編, <朱子大全笱疑>:「既有約, 謂約束不復作詩也。」

9) <주자대전> 권77

水石은 마땅히 더욱 그윽하고 뛰어날 것이며, 館宇는 마땅히 더욱 完美되어 질 터인데, 산에서 밭갈고 물에서 낚시질하며, 성품을 도야하고 책을 읽으며, 악기를 타면서 선왕의 풍도를 읊조린다면, 또한 죽히 즐거워하면서 죽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然予常自念, 自今以來, 十年之外, 曷娶亦當粗畢, 卽斷家事減景此山. 是時, 山之林薄當益深茂, 水石當益幽勝, 館宇當益完美. 耕山釣水, 養性讀書, 彈琴鼓缶, 以詠先王之風, 亦足以樂而忘死矣.)¹⁰⁾

라고 말하고 있는 바, 비록 山水間에 몸을 두더라도 선왕의 법도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작자의 마음을 볼 수 있겠다.

III. 朱熹의 山水遊記에 說理가 없는 所以

중국에서 산수유기는 「老莊告退, 山水方滋」 하던 南朝 시기에 山水詩와 더불어 출현하였다.¹¹⁾ 그러나 당시의 산수유기는 景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에 그쳐서 아직 초기단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체의 본격적 발전은 唐代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元結에서 부터 이다. 그의 <右溪記>는 경물에 대한 기술 위에, 描寫·抒情·議論의 성분을 유기적으로 융합, 산수유기를 높은 예술적 경지로 끌어 올렸고, 柳宗元은 이를 더욱 더 발전시켜, 이후 대대로 끊임없이 이 전통은 후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통 위에서, 한편으로는 宋代에 이르러 면모를 일신한 산수유기가 출현하게 되니, 즉 宋人들의 「尙理」 풍조 속에서 議論과 說理를 위주로 한 詩가 출현했듯이, 산수유기 방면에서도 강한 의론화 경향을 띄는 작품들이 속속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王安石의 <遊褒禪山記>와 蘇軾의 <石鐘山記> 등등을 들 수 있다. 王安石의 <遊褒禪山記>는 먼저 褒禪山 내의 경물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후, 다음과 같이 의론을 발하고 있다.

10) 上同 권78

11) 具遠辰·協幼明의 <歷代遊記選·前言> 참조.

이에 나는 탄식하는 바 있노라. 옛날 사람들이 天地·山川·蟲魚·鳥獸를 관찰하고서 왕왕 터득한 바가 있었던 것은 생각을 깊이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저 가기가 쉽고 가까운 곳은 遊者들이 많이 물리고, 험하고 먼 곳은 거기에 이르는 자가 적다. 그러나 세상의 불만한 것은 늘 險遠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드물게 이르는 바이다. 때문에 꼭 보고야 말겠다는 뜻을 둔 자가 아니면 이를 수가 없다. 뜻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중지하지 않더라도 힘이 없다면 또한 이를 수가 없다. 뜻과 힘이 아울러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따라서 게을리 하지 않더라도, 幽暗昏惑한 곳에 이르러 外力이 도와줌이 없다면 또한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힘이 있어서 족히 이를 수 있는데도 이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조롱을 받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후회하는 바 있겠지만, 자기의 뜻을 다 하고도 이르지 못했다면 가히 후회가 없을 것이요, 그리고 또 누가 조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터득한 바이다. 나는 쓰러진 碑에서 또 古書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음을 슬퍼하나니, 후세에 잘 못 전하였는데도 밝힐 수 없는 것을 어찌 가히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학자들이 가히 깊이 생각하여 삼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소이인 것이다.(於是予有歎焉. 古之人觀於天地·山川·蟲魚·鳥獸, 往往有得, 以其求思之深而無不在也. 夫夷以近, 則遊者衆, 險以遠, 則至者少. 而世之奇偉瑰怪非常之觀, 常在於險遠, 而人之所罕至焉, 故非有志者不能至也. 有志矣, 不隨以止也, 然力不足者, 亦不能至也. 有志與力, 而又不隨以怠, 至於幽暗昏惑而無物以相之, 亦不能至也. 然力足以至焉, 於人爲可讖, 而在己爲有悔, 盡吾志也而不能至者, 可以無悔矣, 其孰能讖之乎. 此予之所得也. 予於僕碑, 又以悲夫古書之不存, 後世之謬其傳而莫能名者, 何可勝道也哉. 此所以學者不可以不深思而慎取之者也.)¹²⁾

이 의론은 왕안석이 同行人들과 함께 「後洞」을 구경하다가 그 중의 게으른 자가 그만 나가자고 하여 중도포기한 후, 깨달은 바가 있어서 發한 것인데, 그 요지는 「爲學不進, 只是不勇」과 「深思而慎取」이다. 산수유기가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宋人들의 記體文은 대부분 記事가 위주가 아니라 의론이 위주였는바, 따라서 宋人 后山 陳師道는 「韓退之는 記를 지음에 그 일을 기술했을 뿐이지만, 지금의 記는 論이다(退之作記, 記其事耳, 今之記, 乃論也)」¹³⁾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12) 具遠辰·協幼明, <歷代遊記選>

그러나 「此文皆是從道中流出」라고 한 朱熹, 그의 산수유기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說理·議論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14), 경물에 대한 기술위에서 描寫와 抒情에 치중했을 뿐이다. 여기서는 描景에서 特長한 곳을 選錄한다. 먼저 <百丈山記> 15)를 보면,

백장산을 3리쯤 올라가면 오른 쪽은 깊은 골짜기이고 왼쪽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인데, 돌을 쌓아서 石階를 만들어 놓았고, 10여 층을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다. 산의 뛰어난 대개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石階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면 곧 小澗을 만나게 되고, 石梁이 그 위로 걸쳐 있는데, 주위는 모두 울창한 고목 수림이어서 비록 盛夏의 정오일지라도 더위를 느낄 수가 없으며, 맑디 맑은 물이 흘러 내리는데 그 소리가 灑灑然하다. 石梁을 건너서 두 낭떠러지를 따라서 굽이굽이 올라가면 山門을 만나게 된다.(登百丈山三里許, 右府絕壑, 左控垂崖, 疊石爲階, 十餘級乃得度. 山之勝, 蓋自此始. 循階而東, 卽得小澗, 石梁跨於其上, 皆蒼藤古木, 雖盛夏亭午無暑氣, 水皆清澈, 自高涼下, 其聲灑灑然. 度石梁, 循兩崖曲折而上, 得山門.)

山門을 나와 동쪽으로 10여 걸음을 가면 石臺를 만나게 되는데 아래로 險絶한 낭떠러지에 임해 있다. 초목이 무성한 곳에서 동남쪽으로 바라보면, 전면에 있는 낭떠러지의 골에서 용솟음쳐 수심 척을 낙하하는 폭포가 보이는 바, 그 포말이 마치 散珠와 噴霧같다. 햇빛이 그것을 비추면 찬란하게 빛나 제대로 볼 수가 없다. 石臺는 산의 서남쪽으로 터져 있는데, 蘆山이 앞에 當해 있다. 유독 봉우리 하나가 우뚝 솟아있고 수백리에 걸쳐 連峯이 즐달음치고 있는 바, 모두 눈에 생생히 들어온다. 해가 저물 즈음에 殘光이 橫照하니 온 천지가 붉었다 푸렀다 반복하여 그 봉우리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 아래를 굽어보니 白雲이 산천에 가득한 것이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고, 遠近 산들 중에서 白雲을 뚫고 올라온 것들은 모두 마치 물에 뜨서 왕래하는 것 같은데 혹 용솟음치고 혹 침몰하여 頃刻에 萬變한다.(出山門

13) 吳訥의 <文章變體序說>에서 摘取.

14) <雲谷記>에서 「有少年棄妻子, 從之問其所授受, 笑不肯言. 然久益堅苦無怨悔之色. 嗚呼, 是其絕滅倫類, 雖不免得罪於先王之教, 然其視世之貪利冒色蕩溺而不厭者, 則其賢矣. 因附記之, 且以自警云.」라고 한 부분은 확실히 의론을 발한 것이긴 하나, 작자가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이는 附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15) <주자대전> 권78

而東十許步，得石臺，下臨巖岸，深昧險絕。於林薄間東南望，見瀑布自前巖穴瀆湧而出，投空下數十尺，其沫乃如散珠噴霧。日光燭之，瓊瑤奪目不可正視。臺當山西南缺，前揖蘆山，一峯獨秀出而數百里間峯巒高下，亦皆歷歷在眼。日薄西山，餘光橫照，紫翠重疊，不可殫數。旦起下視，白雲滿川，如海波起伏，而遠近諸山出其中者，皆若飛浮來往，或湧或沒，頃刻萬變。）

다시 <雲谷記>를 보면,

雲谷은 건양현 서북쪽 70리 쯤에 있는 蘆山의 꼭대기에 있다. 처해 있는 곳은 가장 높지만 못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고, 안으로는 넓고 밖으로는 좁아서 저절로 한 구역을 이루고 있는바, 비록 갠 날이라도 白雲이 물러들어오면 咫尺之間이라도 분별할 수가 없고, 홀연히 구름이 싹 걷히면 또 廓然하여 갈 바를 알 수가 없다. 乾道 庚寅年에 내가 처음으로 여기에 왔고, 인해서 이 곳에다 草堂을 짓고서 晦菴이라고 이름했다. 谷 중에서 물이 서남쪽으로 7리 쯤을 흘러가면 安將院 동쪽에 이르는데, 무성한 수림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고 澗 안에는 巨石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바, 물이 그 사이로 흘러가면서 부딪치는 소리가 山谷에 진동한다.(雲谷在建陽縣西北七十里蘆山之顛. 處地最高而群峯上蟠中阜下踞, 內寬外密, 自爲一區, 雖當晴晝, 白雲壅入, 則咫尺不可辨, 眩忽變化則又廓然莫知其所如往. 乾道庚寅, 予始得之, 因作草堂其間, 勝曰晦菴. 谷中水西南流七里所, 至安將院東, 茂樹交陰, 澗中巨石相倚, 水行其間, 奔迫澎湃, 聲震山谷.)

수백보를 가면 石壁을 만나게 되는데, 높이와 넓이가 모두 백여 척은 됨직하며 폭포가 그 한 중앙에 걸려 흘러내리고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비단을 드리운 것 같다.(行數百步, 得石壁, 高廣皆百餘尺, 瀑布當中而下, 遠望如垂練.)

南峯이 그 배후에서 솟아있는데, 孤圓貞秀하여 비길만한 것이 없다. 그 왼쪽은 또한 무성한 수림과 긴 대나무가 푸르고 뾰족하게 둘러싸서 틈이 보이지 않으며, 그 속에서 숙여 보고 위로 보아도 내 몸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고 땅이 평지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지를 알 수가 없고, 단지 日月을 겹으로나 하고 風雨에나 임할 수 있을 뿐이다.(南峯出其背, 孤圓貞秀莫與爲擬. 其左亦皆茂樹脩竹翠密環擁, 不見間隙, 俯仰其間, 不自知其身之高地之迺, 直可以旁日月臨風雨也.)

그렇다면 이와같은 일 즉 朱熹의 산수유기에 說理가 전혀 없는 이 사실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감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작품 속으로 深入하면 한 단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百丈山記>의 文末에서 朱熹는

나는 유충부·평부·여숙경·외사촌 동생 서주빈과 함께 이곳을 유람하면서, 이미 모두 시를 지어 그 뛰어난데 대해 기술하였고, 나는 또 그 상세한 것에 대해 이와같이 차례를 따라서 서술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만한 것은 石礮·小澗·山門·石臺·西閣·瀑布이다. 인해서 각각 달리 小詩를 지어서 그 곳에 대해 기술하여 同遊한 제군들에게 주었고, 또 이 記로써 이 곳을 유람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에게 고한다.(予與劉忠父·平父·呂叔敬·表弟徐周賓遊之, 既皆賦詩以紀其勝, 余又敘次其詳如此, 而最其可觀者石礮·小澗·山門·石臺·西閣·瀑布也. 因各別爲小詩以識其處, 呈同遊諸君, 又以告夫欲往而未能者.)

라고 하여, 「告夫欲往而未能者」가 이 글의 창작동기임을 밝히고 있다. <雲谷記>를 보면

(山水間에 몸을 두고 싶어도) 지금은 진실로 한가로운 바가 없어, 잠시 그 산수의 뛰어난데를 이와같이 기술하고, 아울러 그것에 대한 시를 지어서, 장차 화가에게 雲谷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할 때에 살펴볼게 하는 것으로써 자위한다.(今誠有所未暇, 姑記其山水之勝如此, 并爲之詩, 將使畫者圖之時覽觀焉, 以自慰也.)

라고 하여, 비록 山水間에 몸을 두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틈이 없어서, 만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畫家에게 이 글에 의거해서 雲谷圖를 그리게 하여 소장하고 싶은 의도에 이 글의 창작동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는데, 朱熹에게는 애초에 산수에서 도움을 빌어 議論을 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산수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推己及人」하여 남과 더불어 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나마 산수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작품들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이런 창작동기들이 그의 산수유기에 說理와 議論이 없게 한 최소한의 一端은 될 것이라고 감히 推斷해 본다.

IV. 結 論

발단에서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 본문에서 얻은 결론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這文皆是從道中流出」라고 한 朱熹가 說理·議論과는 무관한 산수유기 작품을 지은 근본적 所以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山水를 지극히 好愛한 그의 천성에 인해서 「充於中, 溢於外」, 式으로 不得已하게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감히 추단해본다. 둘째, 송대 산수유기의 한 특징인 의론화의 경향이 朱熹의 문학관으로 볼 때는 그의 산수유기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도 왜 없는가, 이는 朱熹에게는 애초에 산수에서 도움을 빌어 議論을 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산수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推己及人」하여 남과 더불어 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나마 산수를 함께 즐기고자 한 데에 그 창작의도가 있었던 것이 그 一端은 되지 않을까 하고 감히 추단해본다.

「文如其人」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산수유기 두 편만으로 朱熹의 전면적인 사상과 성격을 결코 알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편으로써 「格物致知」에 철저했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또 다른 면, 즉 山水를 愛好하고, 그리고 山水間에 지금의 사정으로는 몸을 둘 수 없어서 그림으로나마 그려 소장하면서 보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山水를 남과 더불어 즐기고자 하는 넉넉하면서도 부드러운 면모를 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具遠辰·協幼明 <歷代遊記選> 湖南文藝出版社 中國 1980
 吳訥 <文章變體序說> 長安出版社印行 大만 1978
 陳柱 <中國散文史> 上海書店 影印出版 中國 1984
 朱熹 <朱子大全> 『四部備要』 中華書局 大만 1985
 宋時烈 編 <朱子大全節疑> 성균관대학 소장사본 朝鮮
 <宋史> 景仁文化社 韓國 1979
 (宋)黎靖德(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大만 1983
 程頤·程頤 <二程遺書> 上海古籍出版社 中國 1992